

2024 새해 이렇게

윤병태 나주시장

“500만 관광시대 준비... 첨단 과학도시 도약 원년”



영산포 흥어거리 별미거리로...300리 자전거길·국가정원 등 조성 에너지 엑스포 개최·기업 유치 박차...SOC복합센터 구축 자족기능 강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10년을 맞아 나주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에너지산업 기반 첨단과학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광주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에너지산업을 나주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첫 통합축제를 연 나주시는 한 해 5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500만 관광시대”는 57년 만의 금성산 정상부 개방으로 포문을 열 예정이다.

흥어의 분고장인 영산포 흥어거리는 젊은이들도 찾는 별미 음식거리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누구나 식(食)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건강·안심·배려가 있는 “나주밥상” 100개를 지정해 선보인다.

영산강 저류지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명품 국

가정원을 키워내고, 300리 자전거길 조성, 지식천 강변도시 마실길, 우습제 생태공원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110억원 규모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기는 공간을 마련한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인 동강 느리지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도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빛가람 호수공원 수상 공연장,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나주의 2000년 역사 문화에 기반을 둔 관광진흥 원동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관련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거리 이름을 짓고 기업·기관 주간 행사, 관련 상품 알리기 등을 펼치며 ‘기업친화도시’를 내세운다.

에너지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계기로 ‘에너지 엑스포’(박람회)를 개최해 에너지 대 전환 시대를 이끌 계획이다. 혁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나주 혁신산단 에너지-ICT(정보통신기술)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에 문화·지식·벤처·에너지산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투자유치 행사를 열어 첨단기업을 나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과 연계한 산학연 집적단지 조성하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국가 대형 연구시설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일반산단과 농공단지에는 5000억원 규모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이곳에 친환경자동차 부품·수소 충전소를 확충해 기업 운영 여건을 개선한다.

나주시는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나주 개최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향해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과 귀농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 밖에도 나주 혁신도시가 인구 5만명의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SOC복합센터 등 기반시설을 두루 갖추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올해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나주가 명품 교육도시로 탈바꿈하도록 다양한 교육 복지 정책을 펼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직접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를 이어가고 매달 한 번씩 시민직소상담실을 운영하며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시장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바로 문자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해 ‘시민행복과 나주 발전’에 한 발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에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실증단지 조성

2029년까지 1002억원 투입 혁신 산단 일원 실험장 구축

나주에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에 대응한 세계 최초의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실증단지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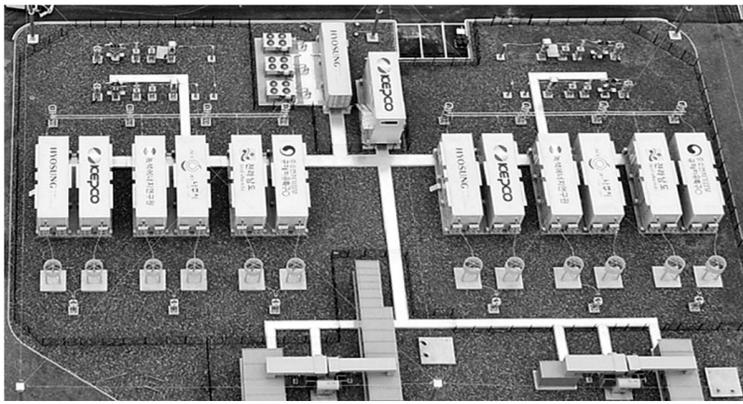
나주시는 에너지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따라 2029년까지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실증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류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망은 기존 교류(AC) 전력 계통망의 포화화 접속 지연, 출력제한 등의 문제점과 전기 자동차 확대, 도심 전력수요 증가 등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해소해줄 핵심 산업이다.

최근 정부의 특구 공모에서 해양모빌리티(부산),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에 선정됐다.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1002억원이 투입된다.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에너지 산학연이 집적화된 나주 혁신 산단 일원에 직류기반 전력망 실증을 위한 상용실험장(테스트 베드)을 구축할



나주혁신산단에 구축된 MVDC(중압직류) 스테이션.

다. 직류산업의 실증, 시험, 인증, 연구 등을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을 마련해 국내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2028~2029년까지 2단계 사업은 서남권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화 연계해 실증결과를 적용, 세

계 최대 규모 직류전력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나주시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에너지 밸리 입주기업들이 미래 전력 기술 분야에서 제품개발, 연구 성과,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표고팽 제작 기술 전수

제빵업체에 꿀빵 등 13종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역 제빵업체를 대상으로 연 1~2회 표고팽 제작 기술교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날 말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카페 3곳을 대상으로 표고팽 제작 기술교육을 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졌다.

연구원은 장흥 대표 특산물인 표고를 활용한 표고주먹빵, 표고꿀빵, 표고불고기포키아 조리법 등을 전수했다.

앞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표고 재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13종의 표고빵을 개발해 홍보했다.

정남진장흥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시식회를 열어 표고빵을 홍보하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 업체 연계를 통한 표고빵 홍보 확대를 위해 지역 제과점·카페를 대상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표고팽 기술교육’에 참가한 지역 카페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연 1~2회의 기술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교육이 장흥군 특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으로 연계되

길 바란다”며 “표고를 통한 가공 상품 개발 등 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 새해 농촌지도 사업 신청하세요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33개...농기센터, 이달까지 접수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라는 주제로 2024년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42억4200만원을 투입한다. 내용은 영농지원 분야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사업 외 8개 사업, 기술보급 분야가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외 33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사업별 신청 기준에 적합한 주민과 단체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거쳐 2월 중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래 농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 농업이 주도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함평군 농업정책도 이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관련 기술교육을 연계 실시해 농업 신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59종 연간 1억원 지원

강진군은 올해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종료하기로 했지만 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혜택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군등본소, 칠량·도암·작전분점에서 빌릴 수 있다.

총 59종 535대의 농기계를 50% 감면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다.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빌린 농업용 굴착기의 경

우 하루 4만7000원에 빌린다.

강진군은 지난해 4252기구에 5531일 농기계를 빌려줬다. 감면해준 임대료는 총 9470만6000원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해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먹거리 주권을 지키는 자세로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고인들 발굴지 보호각 임시 휴관

26일까지 기자재 등 교체

화순군은 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고인들 발굴지 보호각(총양면 대신리·사진)을 임시 휴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관한 화순 고인들 발굴지 보호각은 시설 노후화로 임시 휴관 기간 개선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곳은 지상 2층 규모로, 1999년 고인들을 발굴한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화순군은 국비 포함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천장 철골 구조물 색을 새로 입히고 홍보 기자재를 교체하기로 했다.

화순군 고인들사업소 관계자는 “고인들 발굴지



보호각 내부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선공사가 마무리되면 고인들 발굴지 보호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 친환경 쌀 제주 학교 밥상 오른다

급식 쌀 공급업체 선정...2년간 700곳에 年 400t

담양군의 특산물 대슬맑은 담양 친환경 쌀이 올해도 제주지역 학교 밥상에 오른다.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담양군농협통합RPC)이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제주지역 초·중·고교, 어린이집 700여 곳에 연간 400t의 쌀을 공급한다.

대슬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지난 2011년부터 서울 등지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까지 서울 조계사와 전남도청 등에 납품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76t의 친환경 쌀을 대도시 학교

급식으로 납품했다.

이번에 제주 학교 급식용으로 다시 선정되면서 담양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담양군 측은 설명했다.

대슬맑은 담양쌀은 지난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에 선정됐다. 담양군은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 1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신설하고 생산과 수확, 가공, 출하 전 과정에 걸쳐 4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977ha 규모로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군, 5개 종목 생활체육강좌 운영

골프·요가 등 선착순 모집

장성군은 ‘2024년 생활체육강좌’ 수강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생활체육강좌에서는 골프,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요가 5종목을 운영한다. 종목에 해당하는 월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체육강좌는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강좌가 시작된 이후라도 선착순 모집이 될까봐 많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강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체육사업소 누리집이나 흥길동 체육관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체육사업소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강좌를 통해 건강하고 즐겁게 여가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